

2020년 5월 3일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마 18:1~5)

가정의 평강과 화목과 친밀성과 같은 축복이 풍부해지려면 가족 서로에게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교만은 장기적으로 가족 관계에 해가 됩니다.

누구나 겸손한 사람은 좋아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꺼립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겸손하고 교만한 양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겸손해야 할지, 오늘 예수님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1]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제자들의 질문 “하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아직 미숙하고, 사회적으로는 무능한 어린이 하나를 세우고 말씀하십니다. 3-4 절

이 말씀에서 두가지 포인트를 주목하겠습니다.

- i. 너희가 돌이켜서
- ii. 자기를 낮추는 사람

‘돌이켜서’ -> 어린이를 어른의 병아리 수준으로 경히 여기면서 어른인 자기는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로부터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어린이의 특징을 언급하십니다. 당시 사회적 문화 속에서는 어디에서도 어른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길을 비켜 드리고 어른들 상황에 맞추기 위해 주변을 살핍니다.

불의한 어른들 모습 앞에서도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아이의 낮아짐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은 주눅들라는 것이 아니라 처한 상황을 살피며 선을 위해 무엇을 행할 것인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느끼는 순박하고 온화한 마음은 어른보다 어린이에게 더 있는 것 같습니다.

[2]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5 절에서 권면 하나를 더 볼 수 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어린이 하나를 영접(receive, welcome)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이들의 수준과 인격을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돌보고 위해주는 것은 물론, 대화하고 놀아주는 자연스러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롬 14:7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 주님이 우리를 받아 주심으로써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받아 주실 때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수준에 맞는 사람만 선택하여 받아 주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하고, 유익이 안 되더라도 어린이를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며, 진리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마 25:40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하면 하늘 나라에서 큰 자의 특징은, (1) ‘너희가 돌이키고’, (2)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드러나는 삶의 행동과 태도입니다. (3) 어린이 하나를 받아주고 영접합니다.

[3]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겸손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뜻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겸손은 되어져서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내 안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 1 편 '복(행복)있는 자'는 행복을 목표로 삼고 노력하여 쟁취하는 자가 아닙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걷는 바른 삶을 통하여 내면으로부터 표현되고, 드러나는(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른 삶이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시 1:2). 그 다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묵상의 삶을 걸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나면 내면으로부터 행복(감)으로 드러나 행동과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의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겸손은 이루어서 자타가 인정하는 레이블로 붙여질 수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성품과 방식은 주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걷는 중에 어떤 관계 속에서 상대를 향하여 나의 내면으로부터 표출되고 드러나는 선한 감정이고 의지입니다. 갈라디아서 표현으로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 겸손이지 인위적인 겸손은 이미 겸손이 아닌 성품의 조작이고 삶의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핵심인 순수함, 자연스러움, 진심을 잃게하여 거짓 자아를 만들게 됩니다.

<맞음>

가정의 달을 맞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낮추어 겸손이 드러나며 서로 받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의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봅시다>

1. 나는 어떤 면에서 겸손하며 어떤 면에서 교만하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을 성찰하며 기록해 보십시오.
2.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어린이와 같은 낮아짐이란 무엇입니까?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의 필요한 자질임을 기억하며 깊은 묵상을 가져 보십시오.